

韓國 新石器時代 南部地方 生産活動에 관한 연구(1)

- 動物遺存體를 중심으로 -

崔 鐘 赫*

목 차

- | | |
|--------------------|--------------|
| 1. 머리 말 | 4. 각 유적군의 특징 |
| 2. 유적의 검토 및 유적군 설정 | 5. 맺 음 말 |
| 3. 동물유존체 분석 및 검토 | |

1. 머리 말

신석기시대의 생산활동¹⁾은 사람들의 의지보다는 유적주위의 자연환경과 유적의 지리적 위치 등 자연요소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된다. 즉 농경이라는 정주 생활의 기본이 되는 생산활동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수렵·어로·채집 등이 주요한 생산활동이었다. 생산활동을 살펴보기 위한 주요 자료로는 식물유존체, 동물유존체 등 자연유물과 토기·석기·골각기 등의 인공유물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유적으로는 패총유적과 주거지 유적을 들 수 있다. 현재 남부지방 신석기시대 유적의 대부분은 패총유적이며, 따라서 패각에 의한 동물유존체의 출토상태가 양호한 것이 많아 어느정도 보고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형편이어서 다소나마 생산활동의 유추가 가능한 유적들이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본 연구에서 각 유적의 개요와 함께 동물유존체의 검토를 통하여 각 유적군의 특징을 살피고, 그 결과에 따라 남부지방 신석기시대의 생산활동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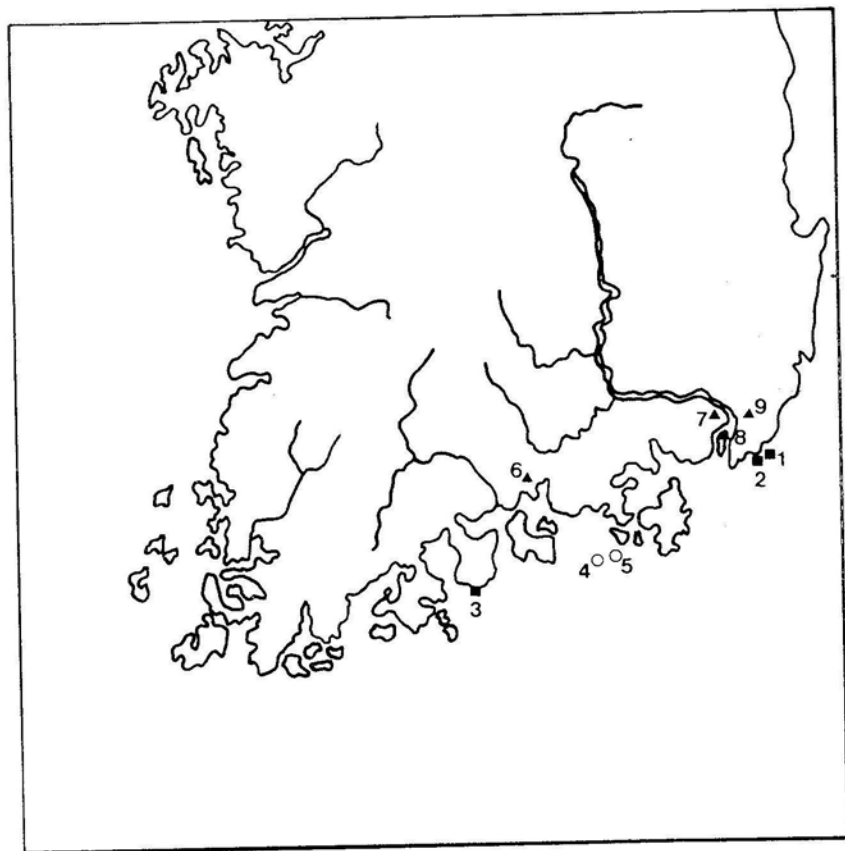
이 논문은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연구학회재단의 1996년도 연구지원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九州大學 大學院 比較社會文化研究科 修士課程 2年

1) 여기서 생산활동이란 채집·수렵·어로활동을 의미함.

2. 유적의 검토 및 유적군 설정

본 연구에서는 남부지방의 신석기시대 패총유적중 동물유존체가 보고되어 있는 패총을 자료로 하여 검토하였다(圖 1). 그리고 유적군의 설정은 유적이 위치하는 지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 | | | | | |
|------------|--------|---------|---|---------|
| 1. 東三洞 | 2. 瀛仙洞 | 3. 突山松島 | → | ■ 沿岸系貝塚 |
| 4. 老島上里·山登 | 5. 煙臺島 | | → | ○ 島嶼系貝塚 |
| 6. 新理 | 7. 水佳里 | 8. 北亭 | → | ▲ 內灣系貝塚 |
| 9. 金谷美里 | | | | |

圖 1. 南部地方 遺蹟 分布

1) 돌산송도유적²⁾

본 자료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한 섬유적이다. 유적은 섬 북쪽의 구릉지대로 비교적 낮은 언덕에 위치하며 유적의 북동쪽으로는 경사가 급한 바위절벽이 바다에 면하고 있다. 유적의 해발은 2~8m이다. 패총은 총 4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층과 3층에서 패류와 부식토가 섞여져 있는 것이 확인된다. 출토된 토기로 보아 유적의 시기는 조기에서 말기까지 전시기에 걸쳐 형성된 유적이지만 중기에 해당하는 태선침선문토기의 출토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시기에 어느정도 공백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층은 용기문·압날문·세침선문토기가 중심이다. 1층과 2층은 교란되어 있으나 후기 또는 말기에 속하는 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이 유적 토기의 특징은 오산리·신암리 등 동쪽의 유적과는 많은 상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석기와 결합어구 등에서는 유사한 형식이 출토되고 있다. 돌산송도유적은 섬에 위치하지만 내륙의 해안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沿岸系 유적군으로 분류한다.

2) 상노대도 상리유적³⁾·산등유적⁴⁾

본 자료 중 육지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섬유적이다. 섬의 주변에는 육지도 패총과 연대도패총이 위치하고 있다. 상리패총은 섬의 남측에 위치하는데 대해, 산등패총은 상리패총에서 북서쪽으로 4km 떨어져 위치한다. 상리패총의 해발은 5~6m이고, 산등패총은 10m이다. 상리패총은 동아대와 연세대가 합동 발굴한 곳으로 각각 다른 층위를 나타내고 있으나⁵⁾ 돌산송도와 비슷하게 중기에 해당하는 유물이 극히 드물다. 그 중 동물유존체가 보고되어 있는 연세대 발굴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연세대 발굴지역은 총 10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4층을 후·말기로, 5층을 중기초 또는 전기말로, 6~8층을 전기로, 9·10층을 조기로 구분하였다. 산등패총은 전기말 또는 중기~말기의 유적이다. 두 유적 모두 내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에 위치해 전형적인 島嶼系 유적군에 해당한다.

2) 국립광주박물관, 『突山松島』 1 국립광주박물관학술총서 제19책, 1989.

국립광주박물관, 『突山松島』 2 국립광주박물관학술총서 제21책, 1990.

3) 1. 김동호, 『上老大島』, 동아대박물관 유적조사보고 8, 1984

2. 손보기, 『상노대도의 선사시대 살림』, 수서원, 1982

4) 김동호·박구병, 『山登貝塚』, 부산수산대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1집, 1989.

5) 동아대 발굴지점에서는 2지구와 3지구 있는데 2지구에서는 6층, 3지구에서는 4층이 확인되었고 출토토기에 의해 4층으로 나누어진다.

3) 연대도유적⁶⁾

상노대도의 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유적은 섬 중앙의 계곡부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해발은 2.5~7m이다. 전부 4지구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그 중 토기를 중심으로 구분하면 크게 4층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4층은 용기문이 중심이며, 3층은 4층과 거의 동일하면서도 많은 패각이 섞여져 있으며 세침선문토기가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2층에서는 용기문이 줄어들고 압인·압날문 등 전기에 해당하는 토기가 많이 출토된다. 유적의 시기는 초기에서 전기에 걸쳐 형성되었다. 중기이후의 패총은 전기 패총에서 120m 정도 떨어져서 위치하고 있다. 연대도유적은 상노대도유적과 같이 島嶼系 유적군으로 분류한다.

4) 동삼동유적⁷⁾

남부지방 신석기시대 유적 중 가장 많이 연구되어지고,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있는 유적이다. 정식 보고서는 아직 간행되지 않았지만 각 연구자들에 의해 많은 자료가 이미 소개되어져 있다. 유적은 섬의 남동부에 위치하며 해발 4~9m이다. 층위에 대한 구분에서는 샘플의 보고에 따라 조도기→목도기→부산기→두도기→두도~영도기→영도기 6단계 분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유적의 시기는 초기~말기의 전기간에 걸쳐 형성되었다. 동삼동유적도 돌산송도유적과 같이 沿岸系 유적군으로 분류한다.

5) 영선동유적⁸⁾

동삼동과 같은 섬에 위치하나,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동삼동에서 서북쪽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해발은 알 수가 없다. 유적의 시기는 초기~중기 초인데 최근 영선동유적 출토의 태선침선문토기가 소개된 바 있다⁹⁾. 영선동 유적도 동삼동과 같이 沿岸系 유적군으로 분류한다.

6) 국립진주박물관, 『濟州島 1 국립진주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8권』, 1993.

7) 1. 金子浩昌·中山壽隆, 『東(濟州島)의 新石器時代遺存體資料』, 『武陵野史』考古學, 1992.

2. L.L.Sample, 『Tongsamdong: A Contribution to Korean Neolithic Culture History』, 『Arctic Anthropology』, 11 2, 1974

8) 김동호, 『瀛仙洞 貝塚의 再檢討』, 『釜大史學』 제8집, 1984.

9) 임학중, 『南海岸 新石器時代 初期의 土器文化에 對한 考察』, 慶北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3.

6) 수가리유적¹⁰⁾

낙동강의 서쪽에 위치하는 유적이며 해발 7~8m이다. 총 6층으로 구성되고 출토유물은 3기로 구분된다. 1층과 2층이 말기, 3층과 4층이 후기, 5층과 6층이 중기에 해당하며 패각층은 1층·3층·5층이고 패각과 부식토가 교대로 퇴적되어 있다. 수가리유적은 강가에 위치하고 있어 전형적인 內灣系 유적군으로 분류한다.

7) 북정유적¹¹⁾

낙동강 하류에 형성된 삼각주 평야내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해발은 5~8m이다. 두 지구로 나누어서 조사한 결과 1지구는 신석기시대의 패총, 2지구는 삼국시대패총으로 확인되었다. 2지구의 최하층은 신석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순수 패각층과 暗赤褐色 부식토층이 나타난다. 유적의 시기는 초기~전기에 해당된다. 북정유적도 수가리와 마찬가지로 內灣系 유적군으로 분류한다.

8) 금곡울리유적¹²⁾

낙동강 하류로부터 최고 북쪽에 위치한 암음유적이다. 패총은 암음주거지의 前面에 위치하며, 해발 40m이다. 패총은 총 4층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최하층은 순수 패각층이다. 유적의 시기는 후기~말기에 해당된다.

울리유적은 암음유적이지만 지리적 입지에 의하여 여기서는 內灣系 유적군으로 분류한다.

9) 구평리유적¹³⁾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다른 유적이 해안이나 강가 사이에 위치하는 것에 비해 구평리유적은 반경 10km이내에는 강 또는 해안이 위치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유적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발은 20~25m이다. 총 4층으로 구성되며 3층이 순수 패각층이다. 유적은 후기~말기에 형성되고 울리유적과 거의 같은 시기로 보아진다. 구평리유적도 內灣系 유적군에 속한다.

10) 정정원 외, 『金海水佳里貝塚』 1 부산대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4집, 1981.

11) 부산수산대박물관, 『北亭貝塚』 부산수산대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2집, 1993.

12) 김정학 외, 『金谷洞栗里貝塚』 부산대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3집, 1980.

13) 단국대중앙박물관, 『사천 구평리 유적』 단국대중앙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16책, 1993.

表 1. 패총의 분류 및 존속시기

| 유 적 명 | | 조기 | 전기 | 중기 | 후기 | 말기 |
|-------|---------|-------|-------|-------|-------|----|
| 內灣系 | 북정 | _____ | | | | |
| | 수가리 | | | _____ | | |
| | 금곡울리 | | | | _____ | |
| | 구평리 | | | | _____ | |
| 沿岸系 | 동삼동 | _____ | | | | |
| | 영선동 | _____ | | | | |
| | 돌산송도 | | | _____ | | |
| 島嶼系 | 상노대도 상리 | _____ | | | | |
| | 상노대도 산등 | | _____ | | | |
| | 연대도 | _____ | | | | |

3. 동물유존체의 분석 및 검토

본문에서 검토한 동물유존체는 패류, 어류, 포유류의 세종류이다. 분석에 들어 가기전에 각 동물의 분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패류의 분류 방법에는 생물학 분류에서 기준하고 있는「綱・目・屬・種」의 계통론적 분류가 있고, 고고학적인 분석으로는 인간의 활동을 중요시하는 분류법¹⁴⁾과 서식환경을 중요시하는 분류법¹⁵⁾등이 있다. 또한 이들에 생물학적인 데이터를 섞어서 분류한 방법¹⁶⁾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패류는 서식지를 중심으로 분류하며 그중에서도 水域과 패류의 群集을 중심으로 분류해 보았다. 또한 어류에서는 서식하는 위치를 중심으로 汽水~內灣, 汽水~近海, 近海~外洋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포유류도 서식하는 위치를 중심으로 육상동물과 해서동물로 분류한다.

1) 동삼동패총(표 2·3·4)

▷ 패류 : 주체패류는 沿岸水 岩礁性의 혼합으로 전시기에 걸쳐 가장 많이 출토된다. 釜出期를 제외하고 60%이상의 출토율을 보이고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14) 金子清昌, 「貝塚に見る縄文人の漁撈生活」 『自然』 35-2, 1980.

15) 松島義章, 『先史時代の自然環境』 東京美術, 1985.

16) 富岡直人, 「朝鮮半島東南海岸島嶼地域における縄文土器時代の貝採集活動について」 『九州考古學』 第62號, 1988.

직접 관찰하면 그 차이를 밝힐 수 있다. 패류 채집에 있어서 돌산송도인은 유적 주변의 환경을 이용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조개를 채집한 것 같고 그 주된 채집 장소는 潮干帶인 것 같다.

▷ 포유류 : 사슴과 멧돼지의 보고가 있을 뿐 상세한 보고는 없다.

▷ 어류 : 어류의 보고는 없으나 결합낚시바늘이 출토되는 것에서 어로활동도 추정할 수 있다.

층위적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시기적인 변화는 알 수 없다. 출토 패류를 보면 지금도 유적 주변에서 쉽게 채집할 수 있는 패류로서 돌산송도인의 생산활동의 주무대는 유적 주변이었을 것이다.

3) 영선동패총(표 11·12)

▷ 패류 : 주체 패류는 굴류이지만 그 외의 패류는 대부분 동삼동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같은 섬에서 주체 패류의 차이는 주된 채집 장소의 차이 또는 해안 성격의 차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채집 활동에 있어서도 동삼동과 같이 잠수어법과 도구의 사용 등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주된 채집 장소는 潮干帶였을 가능성이 높다.

▷ 포유류 : 말과 바다표범의 보고가 있을 뿐이다.

이상에서 영선동인의 생산활동은 자료가 부족하고 유적도 남아 있지 않는 현 시점에서 자세한 판단은 어렵지만 유적주변의 환경을 본다면 동삼동과 비슷한 양상을 띠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상노대도 상리패총(표 5·6·7)

▷ 패류 : 주체 패류는 굴류로 각 시기에서 주체를 점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沿岸系의 패류와 內灣系의 패류가 섞여져 출토하고 있으나 沿岸系 패류의 종류가 많다. 시기적으로 보면 前期에는 패의 종류는 적지만 外海 岩礫性의 패류가 주체를 이룬다. 前期末에서 中期初에는 前期보다 外海 岩礫性의 패류의 양과 종류가 풍부해진다. 後期~末期에는 전체적으로 패의 양과 종류가 풍부해지고 內灣系 패류의 출토도 증가한다. 이 시기에 주목한 만한 패류는 말전복이다. 말전복은 온대성 패류로 지금 남부지방에서는 서식하지 않는 패류이다. 동삼동에서도 같은 시기에 말전복의 출토 예가 있다. 이것은 기온상승에 의한 해수면 변동 등 환경변화를 추정하는 데 좋은 자료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털타고둥·국자가리비·키조개 등 潮干帶에 서식하는 패류가 출토한다. 이것은 전복류와 함께 잠수어법과 도구의 사용 등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채집 활동의 주무대는 潮干帶로 생각되며 시기적으로는 동삼동과 달리 늦은 시기에 활발하게 행해졌다고 생각된다.

▷ 포유류 : 해서동물이 4종, 육상동물이 8종 출토했다. 주체 종은 사슴과 강치이다. 그 외는 표 6과 같다. 수렵의 주무대는 빠른 시기에는 육상과 해상이 같은 비율이지만 늦은 시기에는 육상이 중심이 되며 활발한 수렵활동이 행해졌다고 생각된다.

▷ 어류 : 감성돔과 농어를 제외하고는 近海~外洋에 서식하는 어종으로 주체 어종은 참돔이다. 어로활동 역시 채집과 수렵활동과 마찬가지로 늦은 시기에 활발하게 행해진다.

이상에서 상리인은 유적주변의 환경에 잘 적응하고 이를 이용, 생산활동을 행하며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출토하는 패류(전복류·소라·털타고둥)와 어류(참돔·흑돔)에서는 島嶼系 유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5) 상노대도 산등패총(표 11·12)

▷ 패류 : 주체 패류는 참굴이다. 그 외의 패류는 상리유적의 5층, 즉 중기이후의 시기와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포유류는 사슴과 돌고래의 골편이 보고되어 있으나 어류의 보고는 없다.

이상에서 산등인은 패 채집에 있어서는 상리인과 거의 같은 범위에 같은 기술을 가지고 생산활동을 행했다고 생각된다.

6) 연대도패총(표 11·12·13)

▷ 패류 : 주체 패류는 굴류로 80% 이상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홍합이 10~15%이다. 이 외의 패류는 표 11과 같다. 패 채집의 주무대는 潮干帶이며 전복·소라 등의 잠수어법과 도구의 사용이 필요한 패류의 채집도 하였으나 그 활동은 소극적으로 행해진 것 같다.

▷ 포유류 : 육상동물이 10종, 해서동물이 3종 출토했다. 주체 종은 멧돼지와 돌고래류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島嶼 유적과 비교해 빠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동물이 수렵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나 연대도의 동물유존체를 정리한 金子氏는 대부분의 육상동물은 육지에서 수렵이 행해지고 그곳에서 분리해

필요한 부분만 섬으로 가지고 왔다고 보고있다¹⁷⁾. 연대도에서는 현재 島嶼 유적에서는 가장 많은 육상동물이 출토하고 있다.

▷ 어류 : 어류도 남부지방 유적 중 가장 많은 종이 출토했다. 참돔·상어·혹돔 등 外洋에 서식하는 어류 뿐만이 아니라 송어·감성돔·농어 등의 內灣系 어류도 출토하고 있다. 주체 어류는 참돔과 송뱅어이다.

이상에서 연대도인은 빠른 시기부터 수렵과 어로활동에 적극적인 반면 패 채집활동에 있어서는 소극적이었고 유적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패를 전분적으로 채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7) 수가리패총(표 8·9·10)

▷ 패류 : 홍합이외는 전부 내만에 서식하는 패류로 주체 패류는 굴류이다. 굴은 층위에 따라서 다른 종류가 나오고 있다. 1층과 3~5층에는 참굴과 강굴이 상호 보완적으로 출토하며 5층에서는 갯굴과 같은 外海系의 대형굴¹⁸⁾이, 4층부터는 소형의 굴이 출토하다가 1층에서는 다시 대형굴이 출토한다. 2층에서 굴이 가장 작고, 그 대신 반지락의 채집이 활발해진다. 이와 같이 시기가 늦을수록 內灣의 干潟群集에 서식하는 패류가 많아진다. 그 외 재첩이 각 층에서 출토되며 식용이 아닌 투박조개, 밤색무늬조개 등의 패류의 재료가 되는 패류도 출토한다. 패류 채집장소의 주무대는 干潟의 潮下帶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 포유류 : 육상동물이 8종, 해서동물이 2종 출토했다. 주체 종은 사슴이고 그 외는 표 9와 같다. 해서동물로는 돌고래와 고래가 극소수 출토한다. 수렵에 있어서는 육상동물이 주대상이고 해서동물은 중기에서 소수 출토하고 있다.

▷ 어류 : 감성돔과 농어와 같이 내만계 어종이 많이 출토되며 대구가 후기에

17) 한국 동북유존제를 정리한 金子氏는 島嶼地方의 패총에서는 특정 부위의 섬이 출토되는 것에서 육상동물의 수렵은 육지에서 행하여져 필요한 부분만을 가지고 온 결과로 보아 섬에서의 수렵활동은 부정하는 의견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안덕임씨의 「패총 출토 육지달팽이·남해안지방 신석기시대 패총자료를 중심으로」와 연대도 보고서의 연구에 의하면 島嶼地方의 환경과 육지의 환경이 산림적 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島嶼지역에서도 서식이 가능하고 수렵활동도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육지에 서식하는 種과 島嶼에 서식하는 種은 判定에 의해서 구분 가능한 것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꾀한다고 생각된다.

18) 광복철씨의 「洛東江에 있어서 先史~古代의 漁撈活動」 『伽倻文化』 3, 1990. 에 의하면 수가리 패총에서는 참굴과 강굴이 출토하며 外海系에 속하는 토굴과 일본굴(바위굴)은 출토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갯굴과 같은 外海系라고 보고되어 있으나 보고서 도판에서는 갯굴을 확인할 수 없었고 갯굴은 주로 서해안에 서식하는 굴이라는 사실에서 본문의 표에서는 갯굴을 강굴로 분류하였다.

출토한다. 이상에서 수가리인은 유적 주변의 환경을 잘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생산활동의 주무대는 출토하는 동물유존체로 보아 유적 주변에서 활발히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투박조개, 반색무늬조개 등 패류와 대구 등을 볼 때 수가리인들은 주변의 다른 유적인들과의 물물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으로 수가리는 출토하는 동물유존체로 보아 内灣系 유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 북정패총(표 11)

▷ 패류 : 外海 岩礫性패류~汽水性的 재첩류까지 폭넓게 출토한다. 주체 패류는 굴류이다. 표 11은 삼국시대의 패류와 같이 보고된 것으로 block sampling만을 보면 거의가 内灣系 패류만이 출토한다. 패 채집의 주무대는 内灣의 灣奥部에서 행해졌다. 어류와 포유류의 보고는 없다.

9) 금곡울리패총(표 11)

▷ 패류 : 출토 패류는 표 11과 같고 주체 패류는 굴이다. 汽水性的 재첩이 출토하고 있다. 패 채집의 주무대는 灣奥部の 下灣地와 江河口的 感潮域에서 행해졌다. 그 외 투박조개와 피빨고둥 등 반입품도 눈에 띈다. 어류와 포유류의 보고는 없다.

이상 북정과 금곡울리 유적은 패 채집의 활동으로 보아 전형적인 内灣系 유적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구평리패총(표 11·12)

▷ 패류 : 울리·북정·수가리 등 内灣系의 패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출토하는 패류는 소라, 두드럭고둥 등 潮I帶부터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종류가 대부분인 점에서 沿岸系 패총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주체 패류는 굴류로 95% 이상을 점하고 있다. 두번째는 꼬막의 순이다. 패류의 종류로 볼때는 沿岸系의 특징을 나타내나, 굴류가 95%이상이고 꼬막의 출토율도 많은 것으로 보아 패 채집의 주무대는 内灣의 下灣地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구평리인들은 패 채집에 있어서 꽤 적극적이었고 먼 곳 까지 채집 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포유류 : 사슴이 주체 종이며 그 외 고나리, 멧돼지가 일부 출토하고 있다.

▷ 어류 : 보고된 것은 없으나 결합낚시바늘의 출토와 패 채집의 적극성으로 보아 어로활동도 추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구평리인은 패 채집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거나, 수렵·어로의 활동은 자료가 빈약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소극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출토 패류의 종류를 보면 沿岸系의 유적군과 비슷하지만 주체 종이 굴류이며 95%이상을 점하고 있어 內灣系 유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 각 유적의 동물유존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각 유적이 위치한 생활환경이 그대로 잘 반영되어진 유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입지적인 생활환경을 넘어서 독특한 생산활동을 보이고 있는 유적도 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각 유적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4. 각 유적군의 특징

1) 內灣系 유적군 (표 11·12·13·14, 도 2)

여기에 속하는 유적은 북정(조기~전기), 수가리(중기~말기), 금곡울리·구평리(후기~말기)가 있다. 조기의 패 채집은 굴류·꼬막 등의 灣奥部 干潟地에서 채집되는 것과 河口 感潮域에 서식하는 재첩류가 보이는 것에서 주된 채집 장소는 유적 가까운 곳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며, 그 채집기술도 비교적 쉬웠다고 추정된다. 중기에는 패 채집의 범위와 기술에서 큰 변화는 없다. 어류는 감성돔과 농어 등 汽水~近海에 서식하는 內灣系 어종이 주대상이다. 이것은 패 채집 범위와도 잘 부합된다. 포유류는 대부분 육상동물로 사슴과 멧돼지이다. 후기~말기에는 전기까지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패류에서는 수심 5~20m에 서식하는 피빨고둥과 털탑고둥 등이 출토하고, 대구와 졸복 등 近海~外洋에 서식하는 어종도 출현하는 것 등에서 생활범위에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 변화에 의한 요인과 생산활동 범위의 확대에 의한 다른 집단과의 물물교환 등을 상정할 수 있다.

결국 內灣系 유적군의 특징은 빠른 시기에는 전형적인 內灣系 환경을 보이거나, 늦은 시기에는 자연환경의 변화나 생활범위의 확대에 의한 요소를 생각할 수 있다.

2) 沿岸系 유적군 (표 11·12·13·14, 도 3)

여기에 속하는 유적은 동삼동(조기~말기), 영선동(전기), 돌산송도(조기~말

기)가 있다. 조기의 생산활동은 범위가 좁고 소극적이었으나, 전기가 되면서 패 채집에 있어서는 패의 종류와 기술의 발달에 의해 넓은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행해졌으며 수렵과 어로도 성행해 沿岸系 유적의 기간 중 가장 활발한 생산활동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는 육상의 활동범위보다는 해상의 활동범위가 넓고 주무대도 바다가 된다. 중기~말기까지는 전기와 채집·수렵·어로 대상의 변화는 없으나 수렵과 어로의 활동이 감소하고 생산활동의 주무대가 바다에서 육지로 옮겨지는 변화가 나타난다.

이상에서 沿岸系 유적군은 시기가 늦어질수록 채집·어로·수렵의 활동이 소극적이고 생활활동의 주무대가 바다에서 육지로의 변화가 보인다. 이것은 농경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¹⁹⁾.

3) 島嶼系 유적군 (표 11·12·13·14, 도 4)

여기에는 상노대도 상리(조기~말기), 산등(전기말~말기), 연대도(조기~전기)가 있다. 조기의 생산활동은 沿岸系 유적군과 큰 차이점은 없다. 전기에는 조기보다 활동범위도 넓어지고 채집·수렵·어로의 대상도 풍부해지며 활동의 주무대도 육지와 해상이 같은 비율을 차지한다. 중기의 생산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나 후기~말기의 것에서 미루어 보아 전기보다는 활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기~말기의 시기에는 가장 활발한 생산활동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말전복과 같이 온난계 패류의 출토를 들 수 있다. 이것은 內灣系 유적에서 沿岸水에 서식하는 패류의 출토와 관련시켜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상의 사실에서 島嶼系 유적은 沿岸系 유적과 달리 시기가 늦어질수록 채집·수렵·어로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활동의 주무대는 沿岸系와 같이 육지가 중심이 된다²⁰⁾.

19) 동삼동패총의 석기를 보면 영도기 이후부터 농경에 관계되는 석기의 비율이 높아지므로 沿岸系 유적군의 농경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었다.

20) 島嶼系 유적군에서 생활의 주무대가 육지로 변화하는 것의 기준은 동물유존체 種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것은 본문에서 어로활동이 활발해진다는 말과 상반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석기·골각기 등 수렵·어리에 직접 사용된 도구의 검토·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表 2. 東三洞貝塚 分類

| 棲息地 | 貝種 [※] | 影島 | 頭影島 | 頭島 | 釜山 | 牧島 | 朝島 | |
|------------|------------------------------|-----------------|-----|----|----|----|----|---|
| 沿岸水 | 外海 岩礫性 | 전복 | ○ | ○ | ○ | ○ | ○ | |
| | | 말전복 | | | | | | |
| | | 밤고둥 | ○ | ○ | ○ | ○ | ○ | |
| | | 울타리고둥 | ○ | ○ | ○ | ○ | ○ | |
| | | 소라(內灣에도) | ○ | ○ | ○ | ● | ○ | |
| | | 침배고둥 | ○ | ○ | ○ | ○ | ○ | |
| | | 대수리(內灣에도) | ○ | ○ | ○ | ○ | ○ | ○ |
| | | 어깨뿔고둥 | | ○ | ○ | ○ | ○ | ○ |
| | | 눈알고둥 | | ○ | ○ | ○ | ○ | ○ |
| | | 눈알고둥(內灣에도) | ○ | ○ | ○ | ○ | ○ | ○ |
| | | 홍합 | ◎ | ◎ | ◎ | ◎ | ◎ | ◎ |
| | | 타래고둥 | ○ | | | | ○ | ○ |
| | | 기생고깔고둥類 | ○ | ○ | ○ | ○ | ○ | ○ |
| | | 흰삿갓조개 科 | ○ | ○ | ○ | ○ | ○ | ○ |
| 沿岸 砂底 | 투박조개 여덟모뿔조개 | ○ | ○ | ○ | | | | |
| | | | ○ | | | | | |
| 內灣水 | 內灣 岩礫性 | 개조개 | | | ○ | | | |
| | | 살조개 | | | ○ | | | |
| | 內灣 岩礫性 | 소라(灣外에도) | ○ | ○ | ○ | ● | ○ | |
| | | 눈알고둥(灣外에도) | ○ | ○ | ○ | ○ | ○ | ○ |
| | | 큰뿔고둥 | ○ | ○ | ○ | ○ | ○ | ○ |
| | | 대수리(灣外에도) | ○ | ○ | ○ | ○ | ○ | ○ |
| | | 복털조개 | | | ○ | ○ | ○ | |
| | | 비단가리미 | | | ○ | ○ | ○ | |
| | 참굴(干潟에도) | ● | ● | ● | ○ | ● | ● | |
| | 內灣 砂底 | 반지락(干潟에도) 백합 | | | | | ○ | |
| | | | | ○ | ○ | | | |
| 內灣 泥底 | 피뿔고둥 피조개 | | ○ | | | ○ | | |
| | | | | | | | | |
| 灣奥部 의干潟 | 참굴(岩礫에도) 가무락 반지락(砂底에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河口 感潮域 | 재첩類 | | | ○ | | | | |

- 는 출토한 패류
- 는 두번째로 많이 출토한 패류
- ◎는 주채 패류

이하 표에서도 동일

表 3. 東三洞貝塚 時期別 哺乳類 分類

| 區分 | 動物名 | 影島 | 影~頭島 | 頭島 | 釜山 | 牧島 | 朝島 | 小計 |
|------|--------------|----|------|-----|----|-----|----|-----|
| 陸上動物 | 멧돼지 | | 1 | 3 | | 8 | | 12 |
| | 일본사슴 or 대륙사슴 | 19 | 29 | 124 | 28 | 44 | 16 | 260 |
| | 고라니 | 2 | 3 | 16 | 5 | 66 | 14 | 106 |
| | 時期別 小計 | 21 | 33 | 143 | 33 | 118 | 30 | 378 |
| 海棲動物 | 고래 | 2 | 23 | 88 | 31 | 115 | 12 | 271 |
| | 돌고래 | 2 | 24 | 24 | 6 | 39 | 1 | 74 |
| | 강치 | 10 | 42 | 42 | 13 | 166 | 10 | 262 |
| | 時期別 小計 | 14 | 46 | 154 | 50 | 320 | 23 | 607 |

그 외 陸上動物로는 개·쥐·곰 등이, 海棲動物로는 바다표범 등이 출토했다. 數字는 同定된 骨의 總數이다.

表 4. 東三洞貝塚 時期別 魚類 分類

| 棲息地 | 魚種 | 影島 | 頭-影島 | 頭島 | 釜山 | 牧島 | 朝島 |
|-----------|--------|----|------|----|----|-----|----|
| 汽水 ~內灣 | 송어 | | | 2 | 2 | | |
| 近海 ~外洋 | 방어 | | 1 | 5 | 4 | | |
| | 참다랑어類 | 30 | 3 | 10 | | 20 | |
| | 참대구 | | | 5 | | 26 | |
| | 참돔(岩礁) | 4 | | 32 | 13 | 47 | |
| | 상어類 | | 2 | 24 | 4 | 71 | 1 |
| | 복어 | | | | | 114 | |
| | 넙치(底) | | | | | | 1 |
| 흑돔(岩礁) | 20 | | 219 | 9 | | 5 | |
| 청어 | | | | | | 672 | |
| | 참성돔 | | | | | | |

참성돔은汽水~內灣의 魚
數字는 同定된 骨의 總數

表 5. 上老大島 上里貝塚의 層位別 貝類 分類

| 棲息地 | | 貝 類 | 2 | 3 | 4 | 5 | 6 | 7 | 8 | |
|----------|-----------|--------------|------|------|------|----|------|------|------|--|
| 沿岸水 | 外海 岩礫性 | 전복 | ○ | ○ | ○ | | ○ | | ○ | |
| | | 소라(內灣에도) | ○○○○ | ○○○○ | ○○○○ | | ○○ | ○○○○ | ○○○○ | |
| | | 눈알고둥(內灣에도) | ○○○○ | ○○○○ | ○○○○ | | | ○○○○ | ○○○○ | |
| | | 홍합 | ○○○○ | ○○○○ | ○○○○ | | ○ | ○○○○ | ○○○○ | |
| | | 두드럭고둥 (內灣에도) | ○○○○ | ○○○○ | ○○○○ | | | | ○○○○ | |
| | | 기생고깔고둥 | ○○○○ | ○○○○ | ○○○○ | | ○ | | ○○ | |
| | | 애기삿갓조개 | ○○○○ | ○○○○ | ○○○○ | | | | ○○○○ | |
| | | 울타리고둥 | ○○○○ | ○○○○ | ○○○○ | | | | | |
| | | 밤고둥 | ○○○○ | ○○○○ | ○○○○ | | ○○○○ | | | |
| | | 침배고둥 | ○○○○ | ○○○○ | ○○○○ | | ○○○○ | | | |
| | | 어깨뿔고둥 | | | ○ | | | | | |
| | | 대수리(內灣에도) | | | | | ○○○○ | | | |
| | | 말전복 | ○○○○ | ○○○○ | ○○○○ | | ○○○○ | | | |
| | | 진주배말 | ○○○○ | ○○○○ | ○○○○ | | ○○○○ | | | |
| | | 큰배말 | ○○○○ | ○○○○ | ○○○○ | | ○○○○ | | | |
| | | 바다방석고둥 | ○○○○ | ○○○○ | ○○○○ | | ○○○○ | | | |
| | | 보말고둥 | | ○ | | | | | | |
| 명주고둥 | | ○ | | | | | | | | |
| 두드럭배말 | ○○ | | | | | | | | | |
| 돌조개 | ○○ | | | | | | | | | |
| 벨로드복털조개 | | ○ | | | | | | | | |
| 沿岸砂底質 | | 1 | | ○ | | | | | | |
| 沿岸砂底 | | ○ | ○ | | | | | | | |
| 內灣水 | 內灣砂礫 | 개조개 | ○○ | ○○ | ○ | ○○ | ○ | ○ | ○ | |
| | | 토굴 | ○○ | ○○ | | | | | | |
| | 內灣岩礫性 | 소라(灣外에도) | ○○ | ○○ | ○○ | | ○ | ○○○○ | ○○○○ | |
| | | 눈알고둥(灣外에도) | ○○○○ | ○○○○ | ○○○○ | | | ○○○○ | ○○○○ | |
| | | 두드럭고둥(灣外에도) | ○○○○ | ○○○○ | ○○○○ | | | ○○○○ | ○○○○ | |
| | | 참굴(干灣에도) | ○○○○ | ○○○○ | ○○○○ | | ◎ | ◎◎◎◎ | ◎◎◎◎ | |
| | | 큰뺨고둥 | ○○○○ | ○○○○ | ○○○○ | | ○○○○ | | | |
| | | 대수리(灣外에도) | | | | | ○○○○ | | | |
| | | 매판이고둥 | | ○ | | | | | | |
| | | 비단가리비 | | ○ | | | | | | |
| 벨로드복털조개 | ○ | ○ | | | | | | | | |
| 돌조개(內灣型) | ○ | | | | | | | | | |
| 內灣砂底 | 백합 | ○○ | ○ | ○ | | | | | | |
| | 꼬막(干灣에도) | ○○ | ○ | | | | | | | |
| 內灣泥質 | 새조개 | | ○ | | | ○○ | | ○ | | |
| | 큰구슬우렁 | | | | | ○○ | | | | |
| | 키조개 | ○○ | | | | | | | | |
| | 왕우렁조개 | ○○ | | | | | | | | |
| 灣奥部의干潟 | 참굴(岩礫에도) | ◎ | ◎ | ◎ | ◎ | ◎ | ◎ | | | |
| | 반지랴(砂底에도) | | ○ | | | | | | | |
| | 꼬막(砂底에도) | ○ | | | | | | | | |

※ 1은 1층 출토패류

表 6. 上老犬島 上里貝塚 層位別 哺乳類 分類

| 區分 | 動物名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計 |
|--------|------|----|----|---|---|---|---|---|---|---|----|----|
| 陸上動物 | 멧돼지 | | 1 | | 1 | 1 | | | | 1 | | 4 |
| | 고라니 | | 1 | | | 1 | | | | | | 2 |
| | 일본사슴 | 1 | 1 | | 1 | 3 | | | | 1 | | 7 |
| | 대륙사슴 | 1 | | 1 | 1 | 1 | | | 1 | 1 | | 6 |
| | 수달 | | 1 | 2 | 1 | | | | | | | 4 |
| | 여우 | | 2 | 1 | 1 | | | | | | | 4 |
| | 개 | | 1 | 1 | 1 | | | | | | | 2 |
| | 쥐類 | 2 | 5 | 3 | 3 | | | | | | | 13 |
| 時期別 小計 | | 4 | 12 | 8 | 8 | 6 | | | 1 | 3 | | 42 |
| | | 32 | | | | 6 | 1 | | | 3 | | |
| 海棲動物 | 고래 | 1 | 1 | 1 | 1 | 1 | | | | 1 | | 6 |
| | 물개 | | 1 | | | 1 | | | | 2 | | 4 |
| | 강치 | 1 | 2 | 1 | 1 | 1 | 1 | | | | | 7 |
| | 바다거북 | | 1 | 1 | 1 | | | | | | | 3 |
| 時期別 小計 | | 2 | 5 | 3 | 3 | 3 | 1 | | | 3 | | 20 |
| | | 13 | | | | 3 | 1 | | | 3 | | |

數字는 最小個體數

그 외 돌고래 등의 뼈이 出土했다.

表 7. 上老犬島 上里貝塚 層位別 魚類 分類

| 棲息地 | 魚種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汽水 ~內灣 | 감성돔 | | 4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汽水 ~近海 | 농어 | | ○ | ○ | ○ | ○ | | | | | |
| 近海 ~外洋 | 색가오리科 | | ○ | ○ | | | | | | ○ | |
| | 하스돔科(岩礁) | | ○ | | ○ | ○ | ○ | | | | |
| | 양놀래기(岩礁) | 1 | 5 | 4 | | | | | | 2 | |
| | 줄복(岩礁) | 1 | 11 | 1 | | 2 | | 1 | | | |
| | 알락곰치 | | 5 | 2 | | 3 | | | | | |
| | 참돔(岩礁) | | 9 | 5 | | 1 | | 1 | 5 | | |
| 붉돔 | | 3 | 1 | 1 | 2 | | | | | | |

○는 骨片出土

數字는 最小個體數

表 8. 水佳里貝塚 貝類 分類

| 棲息地 | | 貝 種 | 1 | 2 | 3 | 4 | 5 |
|-----|-----------|------------|---|---|---|---|---|
| 沿岸水 | 外海 | 눈알고둥(內灣에도) | | ○ | | | |
| | 岩礫底 | 홍합 | | | | ○ | |
| 內灣水 | 內灣 | 잠쟁이 | ○ | ○ | ○ | ○ | ○ |
| | 砂礫底 | | | | | | |
| | 內灣 | 복털조개 | ○ | ○ | ○ | ○ | |
| | | 岩礫底 | | | | | ○ |
| | | 비단가리비 | | | | | ○ |
| | | 참굴(內灣에도) | ◎ | ◎ | ◎ | ○ | ○ |
| | | 강굴 | ○ | ○ | ○ | ◎ | ◎ |
| | 內灣 | 반지락(內灣에도) | ○ | ○ | ○ | | |
| | 砂底 | | | | | | |
| | 內灣 | 피빨고둥 | | | ○ | ○ | |
| 泥底 | 왕좁살무늬고둥 | | | ○ | | | |
| 藻場 | 고운피무룩 | | ○ | | | ○ | |
| 灣奥部 | 반지락(砂底에도) | ○ | ○ | ○ | | | |
| | 의干灣 | ◎ | ◎ | ◎ | ○ | ○ | |
| | 참굴(岩底에도) | ○ | ○ | ○ | ○ | ○ | |
| | 돌고부지 | ○ | ○ | ○ | ○ | ○ | |
| 河口 | 재첩 | ○ | ○ | ○ | ○ | ○ | |
| 感潮域 | 타이완시즈미 | ○ | ○ | ○ | ○ | ○ | |

表 9. 水佳里貝塚 層位別 哺乳類 分類

| 區 分 | 動 物 名 | 1 | 2 | 3 | 4 | 5 | 6 | 計 |
|--------|-------|----|---|----|---|---|---|----|
| 陸上動物 | 일본사슴 | 1 | 2 | 1 | 2 | 2 | 2 | 10 |
| | 고라니 | | 1 | 1 | 1 | 1 | | 4 |
| | 멧돼지 | 1 | 2 | | 2 | 2 | 1 | 8 |
| | 삼쟁이 | | 1 | | 1 | | | 2 |
| | 오소리 | | 2 | | 1 | | | 3 |
| | 큰곰 | | 1 | | | | | 1 |
| | 너구리 | 1 | | 1 | | | | 2 |
| | 개 | 3 | | | | | | 3 |
| 時期別 小計 | | 6 | 9 | 3 | 7 | 5 | 3 | 33 |
| | | 15 | | 10 | | 8 | | |
| 海棲動物 | 돌고래 | | | | | 1 | | 1 |
| | 고래 | | | | 1 | | 1 | 2 |
| 時期別 小計 | | | | | 1 | 1 | 1 | 3 |
| | | | | 1 | | 2 | | |

數字는 最小個體數

表 10. 水佳里貝塚 層位別 魚類 分類

| 棲息地 | 魚名 | 1 | 2 | 3 | 4 | 5 | 6 |
|-----------|--------------------------------|---|---|---|--------|--------|---|
| 汽水 ~內灣 | 감성돔 | | | 1 | | 1 | |
| 汽水 ~近海 | 농어 | | | | | 7 | |
| 近海 ~外洋 | 가오리과 줄복(岩) 어름돔(岩) 참대구 | | 1 | 3 | 1 1 | 1 1 | |

數字는 最小個體數

表 12. 南部地方 貝塚遺蹟 哺乳類 分類

| 區分 | 動物名 | 東三洞 | 突山松島 | 瀛仙洞 | 上里 | 山登 | 煙臺島 | 水佳里 | 黃坪里 |
|------|-----------------|-----|------|-----|----|----|-----|-----|-----|
| 陸上動物 | 멧돼지 | ○ | ○ | | ○ | | ◎ | ○ | ○ |
| | 일본사슴 or 대륙사슴 | ◎ | ○ | | ◎ | ○ | ○ | ◎ | ◎ |
| | 고라니 | ○ | | | ○ | | | ○ | ○ |
| | 수달 | | | | ○ | | ○ | | |
| | 여우 | | | | ○ | | | | |
| | 개 | | | | ○ | | | ○ | |
| | 취 | | | | ○ | | ○ | | |
| | 샐췍이 | | | | ○ | | ○ | | |
| | 오소리 | | | | ○ | | | ○ | |
| | 큰곰 | | | | ○ | | | ○ | |
| | 너구리 | | | | ○ | | | ○ | |
| | 족제비 | | | | ○ | | ○ | | |
| 海棲動物 | 산달 | | | ○ | | | ○ | | |
| | 말 | | | | | | ○ | | |
| | 고래類 | ○ | | | ○ | ○ | ○ | ○ | |
| | 고래 | | | | ○ | | ○ | | |
| | 돌고래類 | ○ | | | ○ | | ○ | ○ | |
| | 돌고래 | | | | | | ○ | | |
| | 돌고래 | | | | | | ○ | | |
| 돌고래 | | | | | | ○ | | | |
| 강치 | ◎ | | | ◎ | | ◎ | | | |
| 물개 | | | | ○ | | ○ | | | |
| 바다거북 | | | | ○ | | ○ | | | |

瀛仙洞貝塚에서는 陸上動物과 海棲動物의 報告는 적지만 거의 東三洞貝塚과 같을 것이다.

海棲動物로는 바다표범이 報告되어 있다.

表 11. 南部地方 貝塚遺蹟 貝類 分類

| 棲息地 | | 貝種 | 東三洞 | 突山松島 | 瀛仙洞 | 上里 | 山登 | 煙臺島 | 水佳里 | 北亭 | 舊坪里 | 栗里 | |
|----------|-----------|------------|-----|------|-----|----|----|-----|-----|----|-----|----|---|
| 沿岸水 | 外海 岩礫性 | 까막전복 | ○ | | | ○ | ○ | ○ | | | | | |
| | | 말전복 | ○ | | | ○ | | | | | | | |
| | | 오분자기 | ○ | | ○ | ○ | | | | | | | |
| | | 애기삿갓조개 | ○ | | | ○ | | | | | ○ | | |
| | | 진주배말 | ○ | | | ○ | | | | | | | |
| | | 큰배말 | ○ | | | ○ | ○ | | | | | | |
| | | 두드럭배말 | ○ | | | ○ | ○ | | | | | | |
| | | 밤고둥 | ○ | ○ | | ○ | ○ | ○ | | | | | |
| | | 바다방석고둥 | ○ | | | ○ | ○ | | | | | | |
| | | 명주고둥 | | | | ○ | | | | | ○ | ○ | |
| | | 울타리고둥 | ○ | ○ | | ○ | | | | | | ○ | |
| | | 소라(內灣에도) | ○ | ○ | ○ | ○ | ○ | ○ | | | ○ | ○ | |
| | | 보말고둥 | ○ | | ○ | ○ | | | | | | ○ | |
| | | 참배고둥 | ○ | | | ○ | ○ | ○ | | | | | |
| | | 두드럭고둥(") | ○ | ○ | | ○ | | | | | ○ | ○ | |
| | | 대수리(") | ○ | | | ○ | | | | ○ | ○ | | |
| | | 국화조개 | | | | | ○ | | | | | | |
| | | 어깨뿔고둥 | ○ | | | ○ | | | | | | | |
| | | 총알고둥 | ○ | | | | | | | ○ | ○ | | |
| | | 눈알고둥(") | ○ | | | | ○ | | | ○ | | ○ | |
| | | 홍합 | ◎ | | | | ○ | ○ | ○ | ○ | ○ | ○ | ○ |
| | | 굵은줄격판담치 | ○ | | | | | | | | | | |
| | | 돌조개 | | | | | ○ | | | | | | |
| | | 흰삿갓조개 | ○ | | | | | | | | | | |
| | | 타래고둥 | ○ | | | | | | | | | | |
| | | 기생고깔고둥 | ○ | | | | ○ | | | | | | |
| | | 沿岸 砂泥質 | | 빨조개 | ○ | | | | | | | | |
| 긴뿔고둥 | ○ | | | | | | | | | | | | |
| 털탑고둥 | | | | | ○ | ○ | | | | | | ○ | |
| 국자가리비 | ? | | | | | ○ | | | | | | | |
| 沿岸 砂底 | | 대복 | ○ | | | ○ | | | | | | | |
| | | 투박조개 | ○ | ○ | | | ○ | | ○ | | ○ | ○ | |
| | | 밤색무늬조개 | | | | | | | | ○ | | ○ | |
| | | 조선백합 | ○ | | | | | | | | | | |
| | | 개량조개 | | | ○ | | | | | | | | |
| 여덟모뿔조개 | ○ | | | | | | | | | ○ | | | |

表 13. 南部地方 貝塚遺蹟 魚類 分類

| 棲息地 | 魚 種 | 東 三 洞 | 上 里 | 煙 臺 島 | 水 佳 里 |
|-----------|-----------|-------------|--------|-------------|-------------|
| 汽水 ~內灣 | 숭어 | ○ | | ○ | |
| | 가숭어 | | | ○ | |
| | 감성돔 | ○ | ○ | ○ | ○ |
| 汽水 ~近海 | 농어 | | ○ | ○ | ○ |
| | 양태 | | | ○ | |
| 近海 ~外洋 | 동갈민어(砂底) | | | ○ | |
| | 조기(砂底) | | | ○ | |
| | 가오리科(砂底) | | | | ○ |
| | 색가오리科(砂底) | | ○ | ○ | |
| | 먹붕장어(砂底) | | | ○ | |
| | 쥐치(砂底) | | | ○ | |
| | 성대(砂底) | | | ○ | |
| | 넙치(砂底) | ○ | | ○ | |
| | 괭이상어(砂底) | | | ○ | |
| | 곱상어(砂底) | ○ | | ○ | |
| | 까치상어(砂底) | | | ○ | |
| | 참돔(岩礁) | ◎ | ◎ | ◎ | |
| | 줄복(岩礁) | | ○ | ○ | ○ |
| | 쥐노래미(岩礁) | | | ○ | |
| | 흑돔(岩礁) | ○ | | ○ | |
| | 어름돔(岩礁) | | | | ○ |
| | 하스돔科(岩礁) | | ○ | | |
| | 양늘래기(岩礁) | | ○ | | |
| | 알락곰치 | | ○ | | |
| | 붉돔 | | ○ | | |
| | 솜뱅어 | | | | ◎ |
| | 전갱이 | | | | ○ |
| | 방어 | ○ | | | ○ |
| | 능성어 | | | | ○ |
| | 참대구 | ○ | | | ○ |
| | 참다랑어 | ○ | | | ○ |
| | 새치 | | | | ○ |
| 고등어 | | | | ○ | |
| 청어 | ○ | | | | |
| 청상아리 | | | | ○ | |
| 상어 | | | | ○ | |
| 까치상어 | ○ | | | | |

表 14. 南部地方 貝塚群別 生業構造

| | 內灣系貝塚 | 沿岸系貝塚 | 島嶼系貝塚 |
|-----------|---|--|--|
| 貝類 採集 | 內灣岩礫性群集 ~河口感潮域 참굴 반지락 꼬막 재첩類 | 外海岩礫性群集 ~內灣岩礫性群集 전복類 홍합 소라 참굴 | 外海岩礫性群集 ~內灣岩礫性群集 전복類 홍합 소라 참굴 |
| 哺乳類 狩獵 | 陸上動物 > 海棲動物 사슴類 멧돼지 | 早期~中期(活潑) 海棲動物>陸上動物 後期~末技(消極) 陸上動物> 海棲動物 사슴類 멧돼지 고래 강치 돌고래 | 早期~中期(消極) 陸上動物 = 海棲動物 後期~末技(活潑) 陸上動物> 海棲動物 사슴類 멧돼지 강치 고래 돌고래 |
| 魚類 漁撈 | 汽水~內灣 감성돔 농어 복어 | 近海~外洋 참돔 대구 참다랑어 방어 상어類 | 近海~外洋 참돔 흑돔 가오리類 솜뱅어 상어類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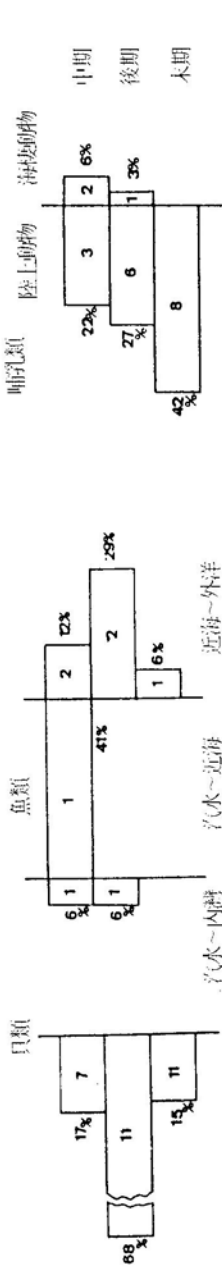


圖 2. 內灣系(水佳里)貝塚時期別 生業構造 變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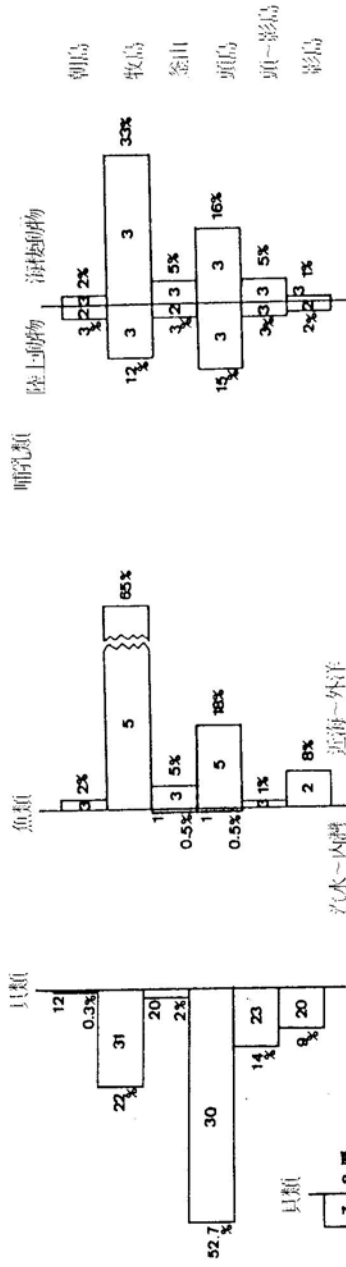


圖 3. 沿岸系(東三洞)貝塚時期別 生業構造 變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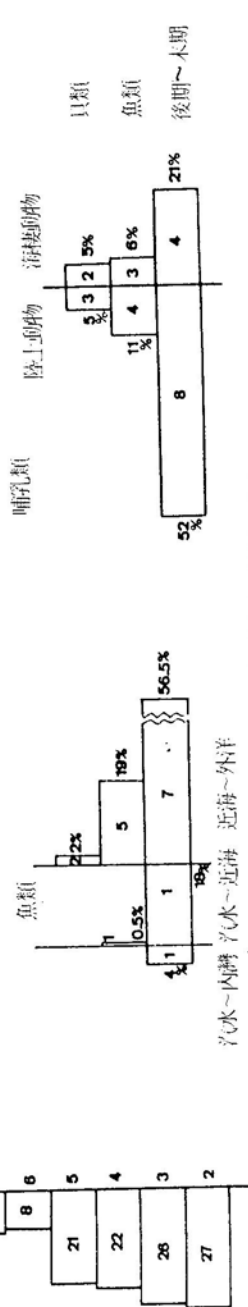


圖 4. 島嶼系(土老大島(上里)貝塚時期別 生業構造 變遷)

* 그래프 안의 數字는 種의 數를 나타냄